

광주 미술축제 계속 이어진다... '아트광주24' 팡파르

10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 국내외 갤러리 106곳·특별전 7개 미술 애호가 교류의 장 '갈라디나' 대작 컬렉션 'VIP' 단독 공간 눈길

호남 최대 미술시장 '아트광주24'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제15회를 맞이한 아트광주24는 국내외 106개 갤러리가 참여하며 이 외에도 '청년작가발굴-라아징스타전' 등 7개 특별전을 마련해 총 113개 부스가 꾸려진다. VIP 콜렉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 여러 부대행사가 진행해 올 하반기 광주 미술축제의 마지막 불을 지핀다.

●역대 최대규모 113개 부스

광주아트24는 광주시가 민간단체 공모 용역을 줬던 것을 올해부터 다시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해 치른다. 국내 갤러리 96곳, 해외 갤러리 10곳이 참여 준비를 마쳤다. 역대 최대규모다. 특히 국내 최대 미술시장 키아프(한국국제아트페어)를 주관한 서울 금산갤러리(황달성 한국화랑협회 회장),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를 주관한 오션갤러리(전 운영속 부산화랑협회 회장) 등 유명갤러리가 참여해 규모를 키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국제조각페스타, 경주국제아트페어, 전주아트전복페스타 등 국내 다른 지역 아트페어 사무국 또한 갤러리 부스로 참여시켜 호남미술의 네트



광주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제15회 '아트광주24'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갤러리도 10곳이 참여하는데, 이중 일부 갤러리는 페어 참여를 넘어 지역 작가를 초대해 현지에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교류 협약을 맺었다. 독일, 미국, 대만, 중국 4개 갤러리가 광주지역 작가 20명을 초대해 6월부터 9월까지 기획전을 진행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싱가포르 갤러리도 현지 전시를 앞두고 있다.

특별전 7곳은 갤러리가 아닌 작가 개인이나 단체, 예술 사업단, 개인 콜렉터들에게 아트페어 참여 기회를 제공한 공간으로 특히 △청년작가발굴-라아징스타전이 눈길을 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 예술가 6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별전 △컬렉션-프로포즈전은 지역에 거주하는 콜렉터들이 본인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미술 애호가들의 적극

적인 유입을 유도하고자 했다. 쿠사마 야요이, 이우환 등 대가들의 작품이 출품돼 기대를 모은다.

●VIP 위한 프라이빗 전시

이번 아트광주24에서는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의 장 '갈라디나'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갈라디나는 오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있는 호텔 홀리데이인 광주 다이내스티 홀에서 열리며 콜렉

터, 갤러리스트 등이 모여 예술적 공감을 나눈다.

이어 같은 호텔 10층 스위트룸 객실을 활용해 VIP만을 위한 전시공간 프라이빗 컬렉터스 룸을 구성하기도 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VIP카드 및 패스권 소지자 한정 최대 5인 내외로 사전예약(062-670-7422)를 통해 출입 가능하다.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선도하며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역사성 깊은 샘터화랑이 단독 준비한 공간으로 이우환, 박서보, 박수근 등 평균 10억원을 호가하는 대작들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컬렉션을 주제로 한 3건의 강연과 페인팅 체험 부스, 아트샵, 시민 도슨트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아트광주24 입장료는 일반 1만원, 학생 7000원으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구매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비엔날레의 관람 티켓을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윤익 아트광주24 감독은 "이번 행사 주제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처럼 광주에서 미술시장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올해는 전국을 넘어 해외와 교류를 지속하고 다양한 신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광주를 풍요로운 미술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양나희 작 '샤이닝'.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제공

골판지로 그려낸 '전남·일신방직' 시대의 풍경

'종이부조 회화' 양나희 개인전 20일까지 양림골목비엔날레서

현재 절찬리 진행 중인 제3회 양림골목비엔날레 'Connecting Way(커넥팅웨이)'의 상설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고갤러리에서 골판지 예술가 양나희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앞서 같은 공간에서 남구 양림동 대표화가 한희원 작가를 시작으로 인도 출신 나레쉬 쿠말(Naresh Kumar) 작가의 전시가 릴레이로 이어진 바 있다.

양나희 작가는 2011년부터 버려진 골판지 상자를 자르고 이어붙이는 '종이부조 회화'를 작업하고 있다. 그녀는 현대 소비사회의 단면과도 같은 '대량으로 폐기된 재료'를 이용해 우리의 사라져가는 삶의 터전을, 그리고 버려지거나 잊혀서

는 안 될 소중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80여년만에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는 전남·일신방직,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한번 쓰이고 버려지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질긴 종이인 골판지는 보통의 삶과 닮았다. 그 시절 노동자들이 공장 내부를 분주히 돌아다니며 실을 이었듯이, 골판지를 자르고 이어 붙여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의 풍경을 그려내고자 한다.

특별히 전통 유화기법을 혼합한 입체부조 형식의 설치작품을 볼 수 있으며, 최근 폐업한 남선연탄과 광주의 사라져간 공간들을 묘사한 골판지 회화작품도 눈길을 끈다.

차고갤러리는 남구 제중로 47번길 11에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 도선인 기자

시월 가을날에 펼쳐지는 '광주상설공연'

매주 주말 서구 공연마루 31일 강허달림 기획공연 기대

광주예술의전당은 10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주상설공연'을 매주 주말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이어간다. 싱어송 라이터 강허달림(사진)이 10월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무대를 준비했으며 이외에도 전통 예술공연, 시립예술단 등 다양한 단체가 무대에 선다.

먼저 오는 5일 광주시립합창단이 '사랑과 계절을 품은 우리 가곡' 무대를 준비했다. 사랑과 사계절을 담아내 우리의 감성을 깊게 자극하는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12일에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무대가 준비돼 있다. 18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떠돌이 약장수가 순박한 청년에게 사랑을



이뤄주는 신비한 묘약이라며 싸구려 와인을 속여 팔아 벌어드는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다.

19일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오늘은 클래식 IV' 공연이 열린다. 클래식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모차르트의 '바순과 첼로를 위한 위한 소나타'와 '아이데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하이든의 '황제'를 연주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작 뮤지컬 '나를 노래해'를 준비했다.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공연은 문제아라 낙인 찍힌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9월에 이어 매주 일요일 무대에는 여락이 '이상한 나라의 꼭두' 공연을 선보인

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전통 꼭두문화를 결합해 각색한 작품으로,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다룬다. 이 작품은 부모(어른)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녀가 다양한 성격을 가진 꼭두를 만나며 어른을 이해하고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린다.

10월 31일 마지막 밤 오후 7시에는 대미를 장식할 '강허달림 시월 BLUSE'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의 '블루스 디바'라 불리는 강허달림 노래 '꼭 안아주세요', '바다라는 녀석' 등을 부른다.

2024 광주상설공연은 12월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 3)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사전 예매)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 관련 사항은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온라인 숏 '들락 DLAC' 개점

ACC 콘텐츠 문화상품 등 판매 10월 동안 무료 배송 서비스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 온라인 숏을 개설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ACC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은 독자적이면서 연결된 아시아의 문화(Dots and Linds of Asia Culture)를 의미한다. ACC재단은 '들락 DLAC'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과 함께 아시아 문화

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숏에서는 브랜드를 소재로 개발된 디자인 문구류와 패션·생활용품부터 어린이 특화상품인 '들락 키즈' 라인의 교구재, 놀이, 문구, 도서는 물론 ACC 전시 및 공연 연계 상품인 '들락 콘텐츠' 등을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들락 에코백,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타이틀 '예언', '시아의 아시아 여행' 옥스퍼드블록 등이 있다.

온라인 숏 개점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물론 ACC 방문객들이 전시·공연 관람의 감동을 이어줄 연계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구입해 간직할 수 있게 됐다.

'들락 DLAC' 온라인 숏 개점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10월 한 달 동안 전 품목 무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매달 5명의 베스트 후기 작성자를 선정해 들락 인기 상품으로 구성된 '들락 굿즈 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들락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온라인 숏 회원 가입 인증 시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들락 DLAC' 온라인 숏은 www.accdlacshop.co.kr로 접속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